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317호 (2012년 8월 첫째 주)

연구기획조정실 · Tour.go.kr

[국토해양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강 체험!	3
[국토해양부] '12년 상반기 여객수송 저비용항공사 시장점유율 상승세 지속	4
[국토해양부] '12년 상반기 국제선 항공 여객 2천만명 돌파	7
[국토해양부] 부산-대마도 항로 국제여객선 이용객 급증	9
[문화체육관광부] 23개 특급호텔, 관광서비스 사회기부 나선다	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1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12
[행정안전부] 남한강 자전거길, 30만이 달렸다	16
[행정안전부] 휴가지 안전대책 및 폭염 등 현안점검	17
[행정안전부] 이번 휴가 숲길을 걸어요,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 10	18
[환경부] 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100만명 시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 자연환경해설사로 나선다	19
[서울특별시] 서울시, K-shuttle로 외국관광객 지방방문 돕는다	20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해파리 피해예방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22
[울산광역시]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 10' 선정	23
[부산광역시] 지금 부산 바다는 해양레포츠의 천국!	24
[인천광역시] 청소년 한강유역 역사문화탐방	26
[광주광역시] 무등산 탐방정보... "스마트 하계"	27
[광주광역시] 광주시, 피서철 물가안정관리 박차	28
[광주광역시] 무등산 옛길 등 시민안전 위한 공원관리대책 강화	29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 자락 다님길' 베스트1 선정	30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광주 ‘상추튀김 에피소드 공모전’ 개최·····	31
[강원도] 강원도 2/4분기 관광지 방문객, 전년동기대비 9% 증가·····	32
[강원도] 강원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추진·····	34
[경기도] 도, 평화누리길과 자전거도로에 CCTV추가 설치·····	35
[경기도] 휴가철 고속도로 정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37
[경기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 전년대비 47% 증가·····	38
[경기도] 경기도 MICE, 상반기에 작년 7배 이상 실적 달성·····	39
[경기도] DMZ, 생태관광 활성화로 개발-보전 조화 가능·····	40
[경상북도] 경북도,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추진·····	41
[경상남도] 관광홍보대사 ‘주령’ 초청·방문·····	42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이용객 10명 중 9명 “만족” ·····	44
[충청남도] 도내 관광지 ‘정밀 방법진단’ 실시한다·····	45
[충청남도]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 ‘케이-서틀’ 시동·····	46
[전라북도] 걷기 좋은 녹색길 전국 ‘BEST 10’ 에 선정·····	47
[전라남도] 한국 주재 외국기업 주재원 남도여행·····	48
[전라남도]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확대된다·····	49
[전라남도] 한·중·일, 관광산업 교류 확대한다·····	51
[전라남도] 외국인 관광객 위한 ‘자유투어버스’ 시동·····	52
[전라남도] 전남 치유의 숲 대상지 17곳 자연치유력 확인·····	53
[전라남도] 전남 해변·섬·숲, 자연 치유 명소로 육성·····	54
[제주특별자치도]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추진·····	56
[제주특별자치도] 2012. 7. 27부터 원동항공 제주-까오슝 취항·····	57

[국토해양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강 체험!

- 페이스북 유저와 함께하는 우리 강 팸투어 이벤트 개최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7월 30일부터 페이스북 유저들을 대상으로 "우리 강 팸투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4대강을 바라보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달라진 4대강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페이스북 '친구' 100명 이상인 페이스북 유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팸투어 참가 대상자는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도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 팸투어는 8월 22일(수), 29일(수) 양일간 진행되며, 4대강 주요시설과 문화관, 주변지역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또한, 팸투어 종료 후 방문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4대강새물결 페이지를 태그하는 유저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10만원권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 행사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7월30일(월)부터 8월 15일(수)까지 팸투어 사무국 이메일(kafeikona@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 기타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추진본부 홈페이지(www.4rivers.go.kr)와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www.riverguid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최성우 주무관 (02-2110-6346) | 등록일 : 2012.07.27)

[국토해양부] '12년 상반기 여객수송 저비용항공사 시장점유율 상승세 지속

- 국내노선은 상승세 둔화, 국제노선은 지속 상승

▷ '12년 상반기 총627만명(국내노선 472, 국제노선 154만명)을 수송, 전년동기(480만명) 대비 송실적이 30.6% 증가

▷ 전체 시장점유율은 '11년 상반기 16% → '12년 상반기 18.5%로 증가

- 국내선은 '11년 상반기 40.5% → '12년 상반기 43.2%

- 국제선은 '11년 상반기 3.6% → '12년 상반기 6.8%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여행수요 증가와 국제노선 신규취항 및 항공기 추가투입 등으로 2012년 상반기에 전년동기(480만명) 대비 30.6% 증가한 총627만명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했다고 발표했다.

○ 또한,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의 국내 및 국제노선 전체 시장점유율은 2011년 상반기 16%에서 2012년 상반기에 18.5%로 높아졌다.

□ 우선, 국내노선을 살펴보면,

○ 수송실적면에서는 전년동기(407만명)에 비해 16% 증가한 472만명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였다.

* 7개 국적항공사 전체로는 1,096만명 수송, 전년동기(1,005만명) 대비 9.15% 증가

○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상반기 40.5%에서 2012년 상반기에 43.1%로 상승하였다.

- 분기별 성장추이를 감안할 때, 성장폭이 최근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저비용항공사들이 수익성이 보다 나은 국제노선에 항공기 투입 등 공급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1.1분기) 40.9 → ('11.4분기) 42.1 → ('12.1분기) 43 → ('12.2분기) 43.2%

- 노선별로는 '11년 상반기 대비 김포-제주, 김해-제주, 청주-제주 등 3개 노선은 다소 증가, 나머지 김포-김해, 군산-제주 등 2개 노선은 다소 하락하였다.

〈 국내 정규노선 실적 현황 (비정규노선 실적 제외, 단위 : 명, %) 〉

구분	2011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대형사	LCC	LCC 점유율	대형사	LCC	LCC 점유율
김포-제주	2,270,804	2,536,204	52.8	2,407,012	3,067,473	56.0
김해-제주	497,436	751,210	60.2	481,113	897,982	65.1
김포-김해	616,713	517,793	45.6	659,477	490,074	42.6
청주-제주	371,376	216,980	36.9	372,481	223,353	37.5
군산-제주	40,438	45,026	52.7	40,336	44,110	52.2

□ 한편, 국제노선은

- 중국인 방문증가, 해외여행자 증가 등 지속적인 여행수요 증가와 LCC 취항노선 증가(13 → 19개), 항공기 추가투입 등으로 총154만명이 이용하여 수송실적이 전년동기(73만명) 대비 112.4% 증가하였고,

* 대형 국적항공사, 외항사까지 포함한 국제노선 전체적으로는 총2,287만명 수송, 전년 동기(1,995만명) 대비 14.6% 증가, 국적사는 1,526만명 수송하여 전년(1,311만명) 대비 16.4% 증가, 국적사 점유율은 소폭 증가 (65.7→66.7%)

- 시장점유율은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배수준인6.8%로 높아졌으며, 2012년 2/4분기만 볼 때는 7.3%까지 높아졌다.

* ('11.1분기) 3.7 → ('11.4분기) 5.2 → ('12.1분기) 6.3 → ('12.2분기) 7.3%

- 노선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취항하는 대부분 노선의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신규 취항 노선인 인천-후쿠오카는 10.4%, 김해-청도는 24%, 인천-나고야는 3.1%, 인천-호치민은 3.8%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 국제노선 중 LCC 점유율이 큰 순서대로 분류하면, 김해-대북(68.7%), 제주-푸동(59.5%), 김해-세부(36.4%), 인천-괌(21.8%) 노선순임

* (주요 외국 LCC 점유율) 인천-오사카노선에 '12. 5월부터 취항중인 일본 피치항공은 3.8%(국적LCC는 8.9%), 인천-쿠알라룸푸르의 에어아시아엑스는 전년동기 37.3%에서 42.3%로 증가(대한항공은 29.2%로 전년동기 수준 유지)

〈 주요 국제 정규노선 실적 현황 (단위 : 명, %) 〉

주요 노선	2011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대형사	LCC	외항사	LCC 점유율	대형사	저비용	외항사	LCC 점유율
인천-방콕	388,803	101,556	816,932	7.8	446,718	222,759	800,725	15.2
인천-홍콩	499,199	43,930	931,164	3.0	552,526	93,621	1,024,473	5.6
인천-후쿠오카	357,228	0	357,228	0.0	394,232	91,970	394,232	10.4
인천-오사카	374,930	54,591	422,155	6.4	436,497	91,481	500,118	8.9
인천-괌	84,117	49,323	84,117	22.7	108,837	60,728	108,837	21.8
김포-오사카	219,745	51,320	315,110	8.8	246,540	58,552	351,446	8.9
김해-대북	0	38,748	18,525	67.7	0	54,267	24,705	68.7
제주-푸둥	0	4	28,213	0.0	0	54,225	36,868	59.5
김해-방콕	85,173	178	114,066	0.1	75,234	52,154	108,272	22.1
김포-나고야	0	49,520	0	100.0	0	51,612	0	100.0
인천-마닐라	348,478	38,542	600,044	3.9	344,722	51,027	612,557	5.1
김해-오사카	110,784	47,342	111,216	17.6	129,994	48,110	129,994	15.6
김해-동경	73,525	2,444	186,701	0.9	77,690	46,013	199,057	14.3
김해-후쿠오카	110,507	42,294	110,507	16.1	130,287	45,599	130,287	14.9
인천-동경	577,781	1,450	829,232	0.1	655,704	43,947	967,784	2.6
김해-홍콩	67,682	11,146	112,782	5.8	56,135	40,888	103,190	20.4

* '12년 상반기 기준 저비용항공사가 4만명 이상 수송한 노선만 포함

□ 국토해양부는 2012년 하반기에도 저비용항공사들의 국제노선 공급력 집중과 해외 여행수요 증가추세 지속 등으로 국제노선을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들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인천-후쿠오카, 제주-푸둥, 김해-동경, 인천-동경 등 신설노선의 본격적 운항과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도 신규 취항 예정

* 제주항공(+2대), 진에어(+2대), 에어부산(+2대), 이스타항공(+1대), 티웨이항공(+1대)의 항공기 추가도입(+8대)으로 국제선 취항 확대 예정

(국토해양부, 담당: 항공산업과 김진희 주무관 (02-2669-6468) | 등록일 : 2012.07.26)

[국토해양부] '12년 상반기 국제선 항공 여객 2천만명 돌파

– 전년대비 14.6%(292만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실적 기록

- '12년 국제선 항공여객은 세계 경기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노선 증가, 주5일 수업 전면 시행,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한 2,287만명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실적을 갱신하였다.

* 국제여객 추이(단위:만명) : 1,595('09상) → 1,915('10상) → 1,995('11상) → 2,287('12상)

- 또한, 국내선 여객의 경우에도 전년동기(1,005만명)보다 9.1% 증가한 1,096만명을 운송하였으나, 국내·국제 항공화물은 171만톤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하였다.

* 국내여객 추이(단위:만명) : 859('09상) → 998('10상) → 1,005('11상) → 1,096('12상)

* 항공화물 추이(단위:만톤) : 145('09상) → 178('10상) → 174('11상) → 171('12상)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국제선 여객은 국내외 연휴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 운항확대에 따른 여행객 부담 완화, 환승여행객 증가 등으로 전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일본노선은 대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LCC 운항 증대 등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하여 증가세를 주도하였고, 단거리 여행수요 증가와 LCC 운항 증대 등으로 동남아 노선은 17.2%, 중국노선은 9.6% 증가하였다.

* 일본노선 증감률 : Δ6.1%(1월) → 5.0%(2월) → 25.5%(3월) → 52.2%(4월) → 35.3%(5월) → 20.5%(6월)

- 국제선 여객 분담률의 경우 국적사가 66.7%로 '11년 상반기 대비 1.0%p 상승하였으며, 외항사(33.3%)의 2배 수준이었다.

- 한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용한 국제선 이용객은 154만명으로 '11년 동기간(73만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여객 분담률은 전년대비 3.2%p 증가한 6.8%를 기록하였다.

* LCC 분담률 : 0.2%('09상) → 1.8%('10상) → 3.6%('11상) → 6.8%('12상)

- 공항별로는 제주공항이 일본·중국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이용객이 전년대비 86.2% 증가하였고, 김포(29.0%), 김해(23.1%) 등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인천공항 환승여객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321만명으로 개항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환승률은 17.5%를 기록하였다.

* 환승여객 : 247만명('09상) → 263만명('10상) → 274만명('11상) → 321만명('12상)

* 환승률 : 18.5%('09상) → 16.6%('10상) → 16.7%('11상) → 17.5%('12상)

- 국내선 여객은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인한 제주여행수요 증가 및 저비용항공사 운항증대로 전년 동기간 대비 9.1% 증가한 1,096만명을 기록하였다.
 - 제주여행 수요 증가 및 KTX 개통으로 인한 지방공항 수요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선 제주노선 비중은 78.4%를 차지하여 전년(76.9%)대비 1.5%p 상승하였고
 - 저비용항공사(LCC)의 국내여객 수송량은 472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하였으며, 여객 분담률도 2.6%p 상승한 43.1%를 기록했다.
 - * LCC 분담률 : 6.8%('08상) → 23.3%('09상) → 34.0%('10상) → 40.5%('11상) → 43.1%('12상)
 - 특히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저비용항공사의 수송분담율이 '11년에 50%를 처음 돌파한 이후 56.0%까지 상승하였다.
 - * 김포~제주 LCC 분담률 : 30.2%('09상) → 44.4%('10상) → 52.8%('11상) → 56.0%('12상)
- 항공화물의 경우 선진국 경기침체와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등 항공수출 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4% 감소한 171만톤을 기록하였으며, 인천공항 환적화물(54만톤)도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 다만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전년 동기간 대비 화물 감소폭 : △2.4%('11상) → △1.9%('11전체) → △0.5%('12.5)
- 국토부는 세계 경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저비용항공사 운항 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국제 유가의 안정 등으로 국내·국제 여객 모두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 7~8월 휴가 기간 등으로 인해 하반기의 항공 이용객이 상반기에 비해 높았음을 고려할 때, 국제선 여객의 경우 연간 4,500만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 '11년 국제선 항공여객 : 4,265만명
- 하반기에도 하계 휴가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5.12~8.12), 런던올림픽(7.28~8.13), 추석 연휴, 중국의 국경절(10.1~3) 등 연휴기간 여행수요와 저비용 항공사의 노선 확충 등으로 여객은 국제·국내선 모두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 항공화물은 유럽 재정위기 및 중국 경기둔화 추세에 따른 세계 IT 수요 부진과 휴대폰 등 주요 수출품목의 해외생산 확대로 전년 대비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부, 담당: 항공정책과 강동수 주무관 (02-2110-6471) | 등록일 : 2012.07.25)

[국토해양부] 부산-대마도 항로 국제여객선 이용객 급증

- 상반기 국제해상여객 1,439천명, 전년 대비 20.8%↑역대 최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상반기 국제여객항로 수송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제 여객선 22개 항로의 총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한 1,439천명으로 일본 지진으로 인한 전년도 실적 부진을 완전히 회복,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특히, 대마도 항로는 부산과 가까운 외국 섬이라는 호기심과 2시간내 짧은 운항 시간, 저렴한 운임, 그리고 면세쇼핑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잇점들로 인하여 부산과 인근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많은 157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로별로 살펴보면 한-일항로가 40%(43만명→60만명), 한-러 항로가 30%(1.9만명→2.5만명), 한-중항로가 9.5%(74.5만명→81.6만명) 증가하였다.
 - 한-중항로는 인천-천진(71%), 인천-단둥(32.5%), 평택-일조(38%) 항로 에서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 인천-연태(20%), 인천-진황도(15%) 등 일부 항로에서는 중국세관의 통관규제 강화 등으로 상인 승선이 급감하여 감소세를 보였다.
 - 한-일항로는 대마도 항로 여객 급증에 힘입어 일본 대지진 이전 실적('10년도 상반기, 58만명)을 넘어 59.8만명을 기록했다.
 - 한편, 광양-시모노세키 항로는 작년 지진 이후 수송실적 부진에 따른 영업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올해 2월부터 휴항하고 있다.
 - 한-러-일(동해-블라디보스톡-사카이미나토) 항로도 한국인의 단체 여행객 증가로 작년 동기대비 30.1%(18.8천명→24.5천명) 증가하였다
- 국제 여객선 이용객은 내국인(54%, 776천명)과 외국인(46%, 663천명)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항로별로 살펴보면, 한중항로에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영향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수준(58%)이며, 한일항로는 내국인의 일본 단체 관광 수요가 많아 내국인 이용객이 월등히(70%)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화물 수송실적은 한중간 교역 컨테이너 물량 감소(▽11.6%)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0.8% 감소하였다.
 - 항로별로는 한중항로가 2.4% 감소한 215천TEU(전년 220천TEU), 한일항로는 5.6% 증가한 54천TEU를 각각 수송하였다.

(국토해양부, 담당: 해운정책과 이외경 주무관 (02-2110-6367) | 등록일 : 2012.07.25)

[문화체육관광부] 23개 특급호텔, 관광서비스 사회기부 나선다

- 문화부와 함께 교육기부,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뜻 모아
- 하반기부터 호텔산업채용박람회, 지방호텔 지원 등 사업 추진
- 특1급 호텔 23개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함께 교육기부,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관광호텔업협회(회장 유용중)와 사회기부 참여 호텔 대표단은 7월 30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박영진 제1차관과 업무 간담회를 갖고, 최근 관광숙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에 부응하여 업계 내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 이행방안인 ① 관광분야 특성화고 출신 중 어려운 가정 여건에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특급호텔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지방호텔과의 협력 발전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③ 호텔채용박람회 공동개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박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관광산업의 핵심인 호텔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업계 내 상호협력, 상생발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박 차관은 호텔은 외래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사랑방과 같은 곳이므로 최근의 '유카타 논란'과 같은 오해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줄 것을 호텔업계에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관광진흥과 남찬우 사무관 (02-3704-9754) | 등록일 : 2012.07.3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창조디자인 전문가 미국 커닝햄 그룹 회장(제임스 샤이델) 초청 강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 주관으로 7월 26일 건설회관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빌딩)에서 관광 및 건설 분야의 업계·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형 테마파크 및 쇼핑몰 성공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관광개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의 대형 테마파크(디즈니랜드, 유니버설 등)와 쇼핑몰의 디자인 성공기법을 들어보고 국내 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코자 마련한 것으로서,

세미나에서 창조 디자인의 세계적 전문가인 미국 커닝햄 그룹의 제임스 샤이델 회장은 '세계 미래형 테마파크 및 쇼핑몰 추진 전략'을, 국내 투자유치 전문가인 '미래형 대형 복합개발 투자유치 성공전략'을 강연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해외 관광개발·투자 사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은 물론, 국내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 방안이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관광레저도시과 최윤식 사무관 (02-3704-9924) | 등록일 : 2012.07.2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7. 24.)
- 용적을 완화하고 관광기금 1.2조 원('12~'16년) 지원한다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 공급하고, 호텔산업 분야 일자리 3만 개 창출

- 외래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관광 숙박시설 부족난이 커지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80%가 수도권을 방문하는 가운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호텔 수요는 36,378실이나 공급은 28,046실(객실 가동률 80% 기준)이어서, 외래관광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8,333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을 확충하여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 지난 1월 26일에 공포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은 호텔 시설 건립 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일괄처리, 용적률 적용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유지 대부기간 확대 및 대부료 감면 등의 상세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법 세부내용을 포함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방안은 ▲규제완화와 행정·재정 지원으로 숙박시설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 ▲양적 확대가 서비스의 질 상승, 일자리 창출과 연계토록 지원 체계를 갖추며 ▲한옥체험, 홈스테이, 캠핑장 등 다양한 대체 숙박시설을 통해 외래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유형과 그 폭을 넓혀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 제도개선을 통한 호텔확충 : 용적률 완화 및 소형호텔업 허용

- 특별법 시행으로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각종 개발 계획상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와 제2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완화할 수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상 주거환경 보호, 용도지구별 각종 규제사항 등 다른 법령상 제한 규정은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이는 초기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자금회수 기간이 2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호텔 건립 시 주차장은 300㎡당 1대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134㎡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 하반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형호텔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관광호텔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지만, 30실 미만의 호텔도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경우 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 부대시설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행행위 관련 시설은 갖출 수 없다.
- 소형호텔업은 중저가/부티크/메디텔 등 호텔의 다양성 확대와 양적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하반기 중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학교보건법 특례(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 행정·재정적 정책 지원 : 기금용자 확대 및 인허가 일괄 처리

-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추진된다.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 분야에 신축, 증개축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1.2조 원)을 향후 5년간 저리*용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 *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최대 -1.25% 적용('12.2/4분기 기준 3% 내외)
-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호텔건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일선 시, 군, 구의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를 통해 간소화되어 처리된다.
- 관광숙박특별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내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0~20명으로 구성된 숙박특별위원회는 관광객 증가추이, 수급동향 등에 따른 대책과 서비스 질 향상과 관광객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게 된다.

- 호텔산업에 대한 투자 상담을 위한 컨설팅단도 운영된다. 컨설팅단은 외래관광객의 월별, 일별 입국추이, 숙박시설 이용행태 등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투자절차와 과정, 체인호텔 가맹 등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3.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등급제 개선, 인력양성 및 지방호텔 지원

- 관광 숙박시설의 양적 확충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현행 등급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캠핑장' 등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서비스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재편하고 3년 단위로 등급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관광 숙박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고 소비자 선택의 편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앞으로 3~4년간 연평균 6.7% 이상의 인력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력공급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실무적 서비스 교육과 분야별 맞춤형 호텔교육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호텔산업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호텔 지원에도 나선다. 지방호텔이 지역사회에서 공공 기반시설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객실 점유율과 시설투자 미흡, 잦은 인력 이동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 지방호텔의 정책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종사자 교육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무상으로 추진하고, 개보수 및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융자금을 우선 배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 대체 숙박시설 확충 : 관광형 모텔(우수 숙박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 고택, 캠핑장 활성화 지원

- 최근 외래관광객의 이용증가 추세에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대체 숙박시설의 확충도 추진된다.
 - 일반 숙박시설(모텔, 여관 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굿스테이 브랜드'를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및 물품 지원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서울에서 3,000실

을 확보할 계획이다.

- 작년 12월 30일 법제화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5년까지 서울에 약 2,000실까지 확대하고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으로 구분하여 한국가정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관광 상품으로 전략 육성을 한다.
- 한국의 전통적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고택, 종택 등 한옥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숙박+체험 상품도 활성화한다. 전통한옥의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 아직 내국인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캠핑장 중 외국인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곳을 육성한다. 한국적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핑장, 야영 중심의 캠핑장 등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최근 캠핑장비 가격 상승으로 구입에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캠핑 관련 장비일체를 저가에 대여하는 풀오피스 캠핑장을 조성하여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도 '12~ '13년에 시범적으로 조성·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관광진흥과 남찬우 사무관 (02-3704-9754) | 등록일 : 2012.07.24)

[행정안전부] 남한강 자전거길, 30만이 달렸다

- 남한강 자전거길 내 북한강 철교 통과자 30만명 돌파

- 남한강 자전거길의 대표적 명소가 된 북한강 철교의 통과자가 7월 29일, 30만명을 돌파했다.
- 남한강 자전거길은 지난해 10월 8일, 중앙선 복선화로 쓸모없게 된 폐철도와 폐철교 구간을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전거 길로 재탄생한 바 있다(남양주 팔당역 ~ 양평군 양근대교 27km).
- 남한강 자전거길 이용자들의 필수 코스가 된 북한강 철교는 외형을 그대로 녹슨 모습으로 유지하여 세월의 흔적을 살리고, 바닥에는 천연목재를 활용하여 자전거로 달릴 때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 북한강 철교 통과자는 금년 들어 계속 증가하여 5~6월에는 매월 5만여명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 지난 6월의 경우 평일에는 하루 평균 1,173명, 휴일에는 하루 평균 3,377명이 방문하고 있다.
- 이번 북한강 철교 통과 30만번째의 행운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양환씨(53세)에게 돌아갔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김양환씨에게 기념패와 함께 자전거 라이딩용 조끼, 자전거길 책자 등을 증정하였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북한강 철교 30만명째 통과를 축하하면서 "남한강 자전거길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명품 자전거길"이라 강조하며
 - "특히 강물 위 철교를 자전거로 달리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꼭 한 번 권하고 싶은 색다른 추억"이라 덧붙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북한강 철교 통과 30만명 돌파를 계기로, 앞으로도 자전거길 여행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잘 조성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걸맞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안전속도 유지, 음주운전 안하기, 안전모 착용 등 안전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자전거길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담당: 자전거정책과 이찬희 서기관 (02-2100-1688) | 등록일 : 2012.07.30)

[행정안전부] 휴가지 안전대책 및 폭염 등 현안점검

- 맹형규 장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본격적인 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휴가지 안전대책과 폭염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 이 자리에서 각 시도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보고했다.
 - 특히, 제주 올레길 사건처럼 한적한 휴가지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및 시민단체를 활용한 자율적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CCTV 및 보안등 확대설치 및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계속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전국 37,218개소) 운영과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휴식 시간제 운영 등 폭염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 일반가정·직장·학교·농어업·건설현장 등 분야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시
-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강화하고, 안전시설과 장비 비치 및 위험지역 현장점검 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맹형규 장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휴가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폭염 피해 및 물놀이 사고 예방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 "국지성 집중호우 등 상황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담당: 재난대책과 고광원 과장 (02-2100-3195) | 등록일 : 2012.07.27)

[행정안전부] 이번 휴가 숲길을 걸어요,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 10

- 이번 여름 휴가는 자연을 만끽하며 '느리게 걷기'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 10'을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 이번 베스트 10 선정은 2011년도 '우리 마을 녹색길'로 선정된 80곳을 대상으로, 53개 지자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 광역시(市) 지역 2곳은 광주 동구 '무등산 자락 다님길'과 울산 울주군의 '영남 알프스 하늘 역사길'이 뽑혔고,
 - 도(道) 지역은 8곳으로 경기 양평군의 '두물머리 물래길'과 강원 철원군의 '소이산 생태 숲 녹색길', 충북 충주시의 '비내길'과 충남 서산시의 '서산 아라메길', 그리고 전북 정읍시의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전남 여수시의 '금오도 비렁길', 경북 예천군의 '삼강~회룡포 강변길', 경남 함양군의 '지리산 자락길'이 각각 선정되었다.
- 심사에 참여한 걷기 여행가 김영록 씨는 "우리마을 녹색길 취지에 맞는 경관성·환경성·접근 및 이용성·편의성·관심도 등을 중점 요소로 지역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했다"며,
 - “비록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대전 서구의 '갑천 생태문화탐방 녹색길'과 안동시 '하회~병산 선비길', 제주시 '갑마장길' 등도 '베스트 10'에 뒤지지 않는 좋은 길”이라고 평가했다.
- 행정안전부는 우리 마을 녹색길 지킴이단을 구성(1,411명)해 지난 5월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안전순찰 등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김장주 지역녹색정책관은 " '베스트 10'에 선정된 녹색길은 포털에 정보 게재, 동호회 참여 걷기대회 개최, 홍보책자 소개 등 다양한 홍보와 걷기 붐을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또한, "2012년도에 조성 중인 45곳에 대해서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사업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담당: 지역녹색성장과 김용권 사무관 (02-2100-1765) | 등록일 : 2012.07.24)

[환경부] 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100만명 시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 자연환경해설사로 나선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외국인 국립공원 탐방 돕기 위해 2015년까지 80명의 외국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 1차로 필리핀, 중국, 몽골 이주여성 15명 자연환경해설사로 양성, 전국 11개 국립공원에서 활동하도록 할 예정
-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들이 외국인 탐방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은 국립공원 알리기 선봉에 나섰다.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전국 국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립공원 탐방을 돕겠다고 25일 밝혔다.
- 공단은 연간 100만 명의 외국인이 국립공원에 방문함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탐방을 돕기 위해 2015년까지 80명의 외국인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공단은 1차로 필리핀, 중국, 몽골 등에서 이주한 다문화가족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개월 동안 북한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인증되는 제도로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자연생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공단은 지금까지 120명의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했으며, 이들은 전국 국립공원에 배치돼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생태를 안내하고 있다.
- 공단 녹색탐방부 송동주 부장은 "이번에 양성되는 다문화가족 자연환경해설사들은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등 10개 공원에서 활동하게 된다"며 "외국인 탐방안내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담당: 국립공원관리공단 조미영 계장 (02-3279-2815) | 등록일 : 2012.07.26)

[서울특별시] 서울시, K-shuttle로 외국관광객 지방방문 돕는다

- 26일 서울방문 외래관광객의 지방방문 편의제고 위한 버스자유여행상품 선보여
 - *버스자유여행상품 : 교통편(버스, 가이드)만 이용하고 관광·식사는 관광객이 자유롭게 선택
 - 전국을 2개 코스로 구분, 지역별 주요명소 순환 셔틀형 버스로 운영
 - 응급조치자격을 이수한 베테랑가이드 탑승 및 기념품(패스포트형 브로셔) 제공
 - 서울시-6개 지자체,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공동추진(코스개발 및 홍보비 지원 등) 및 향후 상생관광 협력 모델로 지속 추진
- 서울시는 26일(목)부터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및 주한 외국인의 지방방문 활성화를 위해 버스자유여행상품(K-shuttle)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 이는 자유여행 형태로 지방방문을 희망하지만 언어 및 대중교통 이용불편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개별관광객이 보다 편하고 쉽게 여행을 하게 되면 한국관광의 만족도가 높아져 자연스레 재방문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을 2개 코스로 구분, 주요명소 연결 셔틀형 버스운영〉

- 「K-shuttle」은 전문가 간담회(학계, 항공사, 언론사 등)와 외국 대학생 팸투어를 통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2개 코스(동남부, 서남부) 내 주요명소를 순환하는 셔틀형으로 운영되며, 아웃바운드여행사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코 스		출발일	정차지
서남부		매 주 화, 목, 토, 일	서울-부여-전주-여수-순천-부산-서울
동남부	A	매 주 화요일	서울-부산-경주-안동-원주-강릉-평창-서울
	B	매 주 토요일	서울-평창-강릉-원주-안동-경주-부산-서울

-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자유로운 탑승 및 다음회차 버스이용을 통해 원하는 기간 만큼의 지방체류 및 자유로운 일정구성이 가능하며, 서남부코스를 이용한 후 동남부코스로 환승하여 전국일주도 가능하다.

〈응급조치자격을 이수한 베테랑가이드 탑승 및 기념품제공〉

- 셔틀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E.F.R(응급처치)자격을 이수한 베테랑가이드가 탑승하여 전체 안내를 담당하며, 코스별 관광명소에는 지자체 문화관광

해설사가 배치되어 수준높은 해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별 관광명소 안내 및 스탬프 날인이 가능한 패스포트형 브로셔를 기념품으로 제공해 한국관광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6개 지자체,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공동추진 및 상생관광 협력 모델로 추진 >

- 서울시는 본 상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6개 지자체(부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전주시) 및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공동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 이를 기반으로 유관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추진해 한국을 대표하는 필수 체험상품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방한 개별관광객 및 주한외국인의 지방방문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신개념 상품인 「K-shuttle」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방 서민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지방 상생관광」의 협력모델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담당: 문화디자인본부 관광과 최용훈 (02-2171-2464) | 등록일 : 2012.07.30)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해파리 피해예방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 순찰근무 강화, 해변119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 안전을 위협하는 여름철 불청객인 독성해파리 출현에 대비하여 울산시 소방본부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지난 17일 진해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해파리에 쏘여 응급처치를 받는 등 최근 해수온도상승으로 울산지역 해수욕장의 해파리 출현률이 25%에서 60%로 상승세에 있으며 강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 해파리 출현률도 2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독성 해파리 출현에 대비, 위험예상지역 집중감시 및 순찰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예지시 피서객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경보 발령 및 입욕통제 등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또, 피서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해변119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인근 전문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s://fire.ulsan.go.kr>)에 해파리 접촉피해 응급대처법을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파리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치법도 다르다."며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처치 받거나 바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 담당: 공보관실 (052-229-4582) | 등록일 : 2012.07.30)

[울산광역시]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 10’ 선정

“이번 휴가에는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 가보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 10'에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이 선정됐다.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 10'은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2011년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80곳의 녹색길에 대해 경관성, 환경성, 접근 및 이용성, 편의성 등으로 1차 서면심사 및 2차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울산시는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이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 10'에 선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명소로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늘역새길은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지난해 3월부터 총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되어 하늘과 역새, 바람과 운무 등을 모티브로 올해 3월 조성된 산악 녹색길이다.

제1구간 역새바람길, 제2구간 단조성터길, 제3구간 사자평역새길, 제4구간 단풍사색길, 제5구간 달오름길로 전체 코스 이동에는 약 1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에도 울산어울길을 비롯해, 학성 역사체험 탐방로, 영남알프스 둘레길 등 녹색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담당: 공보관실 (052-229-3353) | 등록일 : 2012.07.26)

[부산광역시] 지금 부산 바다는 해양레포츠의 천국!

- 주요 해수욕장에서 '마린스포츠 2012' 개막!

- ◆ 7.27~8.5(10일간) 해운대·광안리·송정·다대포 해수욕장 및 서 낙동강에서 요트·윈드서핑·조정·비치발리볼 등 8개 종목 대회와 시민을 위한 8개 체험행사 진행
- ◆ 부산바다축제(8.1~8.9) 기간 중 열리며,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 및 해양레포츠의 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다채로운 해양레포츠 경연과 체험행사가 펼쳐지는 '부산 마린스포츠 2012(BUSAN Marine Sports 2012)'가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10일간) 해운대·광안리·송정·다대포 해수욕장 및 서 낙동강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요트, 윈드서핑, 바다 핀 수영, 해양레프팅, 카이트보딩, 카누레프팅, 비치발리볼, 조정' 등 해양을 대표하는 8개 종목의 경기와 '윈드서핑, 조정, 카누,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고무보트, 카이트보딩, 바다 레프팅'의 8개 종목에 대한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부산시와 종목별 단체가 주관한다.

먼저 '제13회 부산시장배 전국 요트경기대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3일간) 수영만 요트경기장 및 해운대 앞바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 국내외 동호인 등 80여 척 100여 명이 참가해 옵티미스트 등 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같은 기간(7.28~29) 중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개 종목 11개부에서 경쟁하는 '제16회 부산시장배 전국 윈드서핑 대회'가 열린다.

8월 3일부터 4일까지(2일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제17회 부산시장배 바다 핀 수영대회'가 선수권부 및 일반부 경기로 진행된다. 선수권부에는 중·고·대학 선수 등이 출전하며, 일반부는 시민·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8월 4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제2회 다대포 해양레프팅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는 부산시가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수료자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다.

또한, '제5회 시장기 카누·레프팅대회'가 8월 4일(1일간) 강서카누경기장에서 진행된다. 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4개 팀이 1개조를 구성해 3경기씩 카누 레이싱을 펼친다. '제5회 시장배 카이트보딩대회'도 같은 기간 동안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20여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하며 스피드, 행타임, 프리스타일 등 9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특히, 이번 경기는 2016년 브라질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카이트보딩 종목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더욱 반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인 8월 5일에는 2개 종목의 경기가 광안리 해수욕장과 서 낙

동강 조정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안리 해수욕장 특설경기장(민락회센터 앞)에서 32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하는 '제22회 부산시장배 시민비치발리볼대회'가, 서 낙동강 조정 경기장에서는 22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하는 '제5회 부산시장배 조정대회'가 개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마린스포츠 2012'는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포츠 도시 부산의 이름을 드높이는 한편, 여름대표축제 '부산바다축제(8.1~9)' 기간 중 개최 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부산의 바다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담당: 체육진흥과 신창호 (052-888-3226) | 등록일 : 2012.07.27)

[인천광역시] 청소년 한강유역 역사문화탐방

- 5개 시·도(인천·서울·경기·충북·강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 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인천·서울·경기·충북·강원, 수도권 5개 시·도가 참여하는 2012년도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 활동이 인천시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 여름방학 기간중 수도권 5개시·도(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북)의 청소년들에게 한강 유역의 역사 문화유적 및 자연환경 탐방기회를 제공하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100여명의 청소년들은 8월 6일 인천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중구의 차이타운과 개항장을 돌아 강화도의 유스호스텔에서 1박을 시작으로, 11일까지 『2012년 청소년한강역사문화탐방』 행사를 5박 6일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청소년간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번 탐방을 기획했다.
- 강화도지역 탐방을 시작으로 인천을 출발, 강원, 충북, 경기를 거쳐 마지막 서울을 끝으로 해단하게 된다.
- 주요관광지로는 인천 강화도, 인천세계도자센터, 도자체험, 강원도 고생대 자연박물관 관람, 충북 충주댐 및 국립현충원, 서울 서대문 형무소 등 5개 시·도의 꼭 가볼만한 명소들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 이번 탐방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요원과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전문지도자들이 함께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탐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5개 시·도의 청소년들이 이번 문화역사탐방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문화에 대한 접근법을 넓히고, 폭넓은 사고를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역사문화 탐방과 한강을 주제로 한 국내의 관광매력에 흠뻑 빠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담당: 관광마케팅팀 정상규(032-440-4068) | 등록일 : 2012.07.30)

[광주광역시] 무등산 탐방정보... “스마트 하계”

- 8월 1일부터 옛길 1구간 스마트폰 통해 정보제공 서비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무등산에 대한 다양한 탐방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 서비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제공 시스템은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동영상·문자·그림 등으로 무등산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1단계로 옛길 1구간에 대한 서비스가 개시된다.

서비스 개시에 따라 무등산 탐방객들은 이정표, 해설판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무등산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보제공 시스템에는 옛길 1구간 7.8km의 탐방 스마트 지도와 함께 총 17개소에 대한 qr코드가 설치되어 각종 등산정보, 문화자원 및 스토리텔링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잣고개, 동문터, 충장사, 원효사 등 무등산의 주요 인문자원에 대해서는 생태해설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 무등산 탐방의 또 다른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시에서 준비 중인 무등산 웹박물관 사업과 연계해 현지에서 무등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국립공원 승격이 예정되어 있는 무등산공원을 찾는 외지인에게도 광주의 품격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정보제공 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행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담당: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062-613-7850) | 등록일 : 2012.07.30)

[광주광역시] 광주시, 피서철 물가안정관리 박차

-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시·구·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 가져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피서철을 맞아 건전한 행락풍토 조성 및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27일 시청에서 양동·말바우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구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물가상승률이 금년 2월을 고비로 2%대를 유지하고 있고, 7월에는 1.7%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도가 더욱 민감해지고, 피서철 소비가 많아지는 육류(쇠고기, 삼겹살, 생닭 등)와 과일 가격 오름세가 급등함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행락지별 물가실태 조사 및 가격표시제 준수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강화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 강화 ▲행정기관 관리요금의 안정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정종록 말바우시장 상인회장은 "최근 시장경영진흥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 주요 재래시장 중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에서 취급하는 16개 대표상품의 가격 조사결과가 전국 다른 지역 재래시장 보다 비교적 낮게 발표 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보다 낮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회를 주축으로 물가안정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나 시의 물가안정관리 정책에도 부응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주요 행락지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휴가철에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담당: 경제산업정책관실 (062-613-3630) | 등록일 : 2012.07.30)

[광주광역시] 무등산 옛길 등 시민안전 위한 공원관리대책 강화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제주 올레길 인명사고와 관련해 무등산 옛길 및 근린공원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 산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무등산공원내 옛길 3개구간(42.5km), 지정탐방로 15개 노선(23.17km)에 대해 청원경찰 등 직원들로 순찰반을 구성해 1일 2회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객 및 입·출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5개소의 cctv(증심사지구 3개소, 원효사지구 1개소, 장불재 1개소 등)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설치가 안된 취약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예찰활동 강화를 위해 정기순찰 취약지역 중심으로 1일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유관기관(석곡파출소, 산수파출소, 학서파출소 등)에서도 탐방로 주변의 순찰을 강화해 주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옛길구간 산행시에는 300m 간격으로 설치된 거리표지 번호를 반드시 숙지해 지인에게 현재 위치번호 알리기, 이상자 발견시 즉시 119에 신고하기, 2,3명이상 동반 등산하기, 지정등산로 이용하기 등을 권장하기 위한 탐방객 안전수칙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안전한 산행을 위한 탐방객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무등산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위치한 114개의 근린공원도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과 경찰의 협조하에 주야 구분 없이 순찰 등 치안,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대책을 확행하도록 일선 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광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에게 탐방로 이용시 3대 주의사항으로 ▲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공원이용을 자제하여 줄 것 ▲ 여성이 혼자 산행하는 것은 자제하고 3명 이상이 동행해서 산책하도록 할 것 ▲ 무등산과 같이 코스가 긴 등산길과 외진 숲길 산행시에는 긴급연락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 했다.

(광주광역시, 담당: 공원녹지과 (062-613-4230) | 등록일 : 2012.07.25)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 자락 다님길’ 베스트1 선정

- 행안부, '우리마을 녹색길 명품 베스트10' 선정·발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지원한 친환경생활 공간조성 80개소 사업 중 「우리마을 녹색길 명품 베스트 10」에 '동구 무등산자락 다님길'이 베스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등산자락 다님길'은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무등산 주변 등산로 중 가장 완만한 노선으로 지산유원지-깃대봉-학운초교-동적골 등 총 13km를 연결 노약자 등 누구나 쉽게 다닐수 있는 녹색길로 조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직접 현장 확인을 거쳐 전문가 검토와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으며, 인센티브로 기관 및 개인표창, 명품 녹색길 선정 인증패를 수여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친환경생활공간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 45억원을 투입해 이번에 best 10에 선정된 동구 무등산자락 다님길 외에도 총 5개소 137km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태경관 거점과 인근주변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녹색길(접근로) 조성을 통해 전국 제일의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드높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담당: 환경정책과 (062-613-4130) | 등록일 : 2012.07.25)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광주 '상추튀김 에피소드 공모전' 개최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향토음식을 발굴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상추튀김 에피소드 공모전'을 개최 한다.

상추튀김은 먹거리가 별로 없었던 1970~80년대의 어려운 시절에 학생, 일반서민이 즐겨 먹었던 간식거리로 충장로 골목길에서 처음 선보인 광주의 향토음식으로 상추를 기름에 튀기는 것이 아니고 튀김을 상추에 싸서 먹는 음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추튀김 이름 자체만으로도 외지 방문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추튀김의 특징과 스토리텔링을 연계하면 광주의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상추튀김이 언제 어느 곳에서 시작되었는지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상추튀김이 시작된 시기와 관련해 70년대 설과 80년대 설이 있으나 시작된 장소와 관련해서는 광주 학생회관 뒷골목이라는 설과 충장파출소 인근이라는 설이 있다.

에피소드 응모자격은 지역과 연령 제한이 없으며, 신청서식은 광주시 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광주 상추튀김에 얹힌 재미있는 추억, 사연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오는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관광진흥과에 접수하면 된다.

- (우)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4층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에피소드 공모전 담당자

※ 담당자 이메일로 응모작품 제출(namju88@korea.kr)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 8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시상 작품은 남도음식 스토리텔링의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에피소드 공모전 계획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관광진흥과(613-3641)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 담당: 관광진흥과 (062-613-3640) | 등록일 : 2012.07.24)

[강원도] 강원도 2/4분기 관광지 방문객, 전년동기대비 9% 증가

□ 금년도 2/4분기 중 강원도내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 동기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작성 및 운영 지침」에 의거 도내 지정관광지, 관광휴양지, 휴양림 등 270개 지점에서 2/4분기 관광지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 도내 관광지에 전년동기 15,218천명 대비 1,369천명(9%) 증가한 16,587천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12년 2/4분기까지 누계 : 31,039천명(전년대비 증 3,233천명, 11.6%증)

○ 특히 최근 들어 강원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 지난 2/4분기까지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88만명으로 전년 66만명 대비 32.2% 증가하여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2/4분기까지 누계 : 2011년 66만명, 2012년 88만명(증 22만명)

- 이 같은 수치는 한국 전체 외국인 방문증가율 24.2% 보다 약 10% 가까이 더 높다. 이 추세라면 금년 유치목표인 165만명을 훨씬 초과하여 약 180만명 이상이 강원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는 강원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강원도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 청청이미지, 넉넉한 인심 등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함께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관광 1번지」로서의 강원관광의 저력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 관광객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 교통망 확충 개선에 따른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 향상으로 춘천, 홍천 지역의 관광지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행사에 찾는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였다.

- 춘천마임축제, 산나물 축제(양구곰취, 정선곤드레, 홍천백두대간산나물 축제 등)

○ 또한 본격적인 주5일제 확대시행과 생태체험관광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정선 화암동굴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이밖에 가족단위 캠핑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도내 주요 자연휴양림 (청태산자연휴양림, 삼봉자연휴양림 등) 및 캠핑장 이용객도 증가 추세이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에서는 『한류관광열차』 운행노선 확대와 K-POP 콘서트 및 한류스타 팬미팅 등의 맞춤형 전략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겨울관광지로써 인지도 상승에 힘이며 남이섬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 시군별로는 전체 18개 시군중 11개 시군은 증가하였고, 7개 시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춘천시와 홍천군은 교통망 확충 개선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14.9%, 45.3% 각각 증가하였고,
 - 강릉시는 단오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16.4% 증가하였으며, 속초시는 대형 콘도리조트 리모델링 사업 완료 및 대포항 주차장 확충에 따라 14.2% 증가하였다.
 - 정선군은 화암동굴을 중심으로 아우라지, 아라리촌 등의 관광지가 많은 인기를 끌면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고, 영월군도 주요 관광지인 고씨동굴을 중심으로 14% 증가하였다.
 - 다만, 금강산이 중단된 지 만 4년째 고성군은 전년대비 12% 감소 하였으며, 인근 양양군은 3.7%, 인제군도 5%씩 각각 감소하였다.
 - 침체된 관광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설악오색로프웨이 설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
- 앞으로, 도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됨에 따라
 -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겨울 스포츠 & 한류문화 투어 등 동계 관광상품 개발, 수도권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셔틀버스 운행, 맞춤형 강원관광 홍보 및 광고 등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담당 : 관광진흥과 (033-249-3331) | 등록일 : 2012.07.27)

[강원도] 강원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추진

- 강원도에서는 7월25일부터 8월12일까지 19일간을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광·피서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 올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은 지난해 보다 2.5%증가한 일평균 406만명, 총7,723만명으로서 이중 강원도를 찾는 이동인원은 일평균 동해안 91만명, 강원내륙권 43만명으로 총 134만명이며, 연인원으로는 2,54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중 7,410만대(일평균 390만대)로서 이 중 우리도의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일평균 95만대로 예상된다.
- ※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4,000세대 설문조사 자료
- 이에따라, 강원도에서는 시외버스 20개노선 운행횟수를 평소 보다 62회/일 증회한 233회를 운행토록 조치하고, 고속버스 운행횟수도 평소 92회 보다 15% 증회한 106회를 운행키로 조치하였다.
 - 아울러, 피서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송차량의 점검, 운수종사원 특별안전교육, 여객터미널 시설 점검, 피서지 도로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도를 비롯한 시·군에 연인원 361명을 투입,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경찰청, 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 교통소통 현황을 파악하고 도로, 철도, 항공, 기상, 등 각종 정보 제공과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지점에 구급차와 견인차를 배치하는 등 피서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 한다
 - 특히, 상습 지정체구간 8개소(고속도로 7, 국도 1)의 우회도로를 지정 관리하고, 주요 고속도로 나들목과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우회도로안내 표지판 설치와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통한 지정체구간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은 물론 우회도로 안내를 실시하여 강원도를 찾는 관광·피서객들에게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그리고 국가교통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소통상황 및 대중교통이용정보, 기상정보 등 각종 교통정보를 전화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피서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강원도, 담당 : 도로교통과 (033-249-2769) | 등록일 : 2012.07.25)

[경기도] 도, 평화누리길과 자전거도로에 CCTV추가 설치

- 31일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 추진 계획 발표

경기도가 도내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취약 지역에 CCTV와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최승대 행정2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 예방대책을 마련, 도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도는 지난 2010년 개장한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으로 이르는 184km 구간의 경기도 평화누리길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경기도는 여름철에는 오후 6시, 겨울철에는 오후 5시까지 산책로 탐방을 마무리하고 단독 도보여행을 자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보여행자 안전수칙을 마련 DMZ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 노선별 주요지점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치안 취약지역, 위험구간은 전수조사를 실시, CCTV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을 201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84km 구간 총 12곳에 CCTV 설치 비용으로 약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159개, 보행자 겸용도로 1,382개, 자전거전용차로 19개 등 모두 1,560개 노선 3,284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도 수립됐다. 도는 현재 남한강 자전거길 등 9개 노선에 39개가 설치돼 있는 CCTV를 자전거 도로터널과 교량 등 취약지역 7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인적이 드문 평택과 양주 2개 구간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남한강 남양주 양평 구간과 공릉천 고양 구간 자전거도로에는 가로등 258주와 보안등 106주를 올해 안으로 추가설치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자율방범대와 동호회, 지킴이단 등 유관단체와 연계한 도로 순찰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자전거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66개 불량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복구 작업과 도로 주변 제초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학교밖 폭력예방을 위해서 도는 여성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긴급 피난처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도 확대된다. 도는 현재 수원과 의정부 등 도내 6개소에 위치한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올해 연천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지난 3월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설치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도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CD를 10월에 제작배포하는 한편, 도내 시내버스 1만여 대에 여성폭력 예방 관련 콘텐츠를 배포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주 올레길 살인 사건, 통영 초등생 실종사건 등 강력범죄 때문

에 불안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경찰과 31개 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여름철 전력위기에 대한 비상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도는 오는 9월 21일까지를 전력위기 비상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정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제한, 사무실 조명 30분씩 점등하기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경기도, 담당 : 기획담당관 (031-8008-2116) | 등록일 : 2012.07.31)

[경기도] 휴가철 고속도로 정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지난해 여름 휴가철 통행패턴 분석 결과 발표
- 우회도로 이용시 최대 50분 단축되는 구간도 있어

여름 휴가기간 동안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인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시간대를 피해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

경기도는 3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었던 지난해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패턴을 분석하고, 각 도로별 정체시간대와 우회도로 이용방법을 발표했다.

경기도 교통정보과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정시간대에 차량이 집중돼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출발시간 조절과 고속도로 정체시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통행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가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동고속도로는 호법JC~여주IC 구간에서는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하행선 모두 정체가 발생했다. 이 구간은 일반국도 42호선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분가량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수원IC~오산IC 구간은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정체가 발생하고, 오산IC~안성IC 구간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국도 1호선을 이용할 경우 30분가량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팔곡JC~발안IC 구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발안IC~서평택IC 구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장시간 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구간 정체시에는 일반국도 39호선과 82호선의 우회국도가 좀 더 원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름 휴가철 신속한 교통정보와 우회도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경기도교통정보센터(☎1688-9090)를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서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수집한 교통정보를 스마트폰,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담당 : 교통정보과 (031-8008-6812) | 등록일 : 2012.07.30)

[경기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 전년대비 47% 증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78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3건에 비해 25건(47.2%) 늘어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여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범위 분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13건, 계약내용 위반에 따른 분쟁이 11건, 여행지에서 가이드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10건 등이었으며, 여행개시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 문의도 9건 접수됐다.

실제로 A(30대 남) 씨는 얼마 전 중국으로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 당일 출국을 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B(50대 남)씨는 해외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했는데 가이드가 원하지도 않는 옵션 투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너무 저가의 관광 상품을 조심하고, 계약 후 해지할 때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영수증, 사진 등 근거자료를 준비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

(경기도, 담당 : 경제정책과 (031-8008-5322) | 등록일 : 2012.07.29)

[경기도] 경기도 MICE, 상반기에 작년 7배 이상 실적 달성

- 올 상반기 직접 유치한 마이스 참가자 수 지난해 7.2배 달해
- 28일 첫돌 맞는 경기컨벤션뷰로 MICE 산업 적극 육성 결과

MICE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컨벤션뷰로가 이달 설립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참가자수 기준으로 올 상반기에 이미 작년 MICE 유치 실적의 7배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컨벤션뷰로는 "지난해 설립 이후 총 13건 총 19,810명을 유치했으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 올해는 지난 6개월 동안 38건 총 142,728명(개최 예정 행사 포함)을 유치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경기도를 찾은 MICE 참가자수의 7배가 넘는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의미하는 MICE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브랜드 제고 효과가 큰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경기도는 17대 국가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된 MICE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속 기구인 경기컨벤션뷰로를 지난 해 7월 설립했으며 28일(토) 1주년을 맞이한다.

경기컨벤션뷰로는 지난 1년 동안 '국제로타리 2016 한국대회(총56,000명/외국인 29,000)' '아시아부직포연맹전시(ANEX) 및 관련 회의 2개(13,373명/외국인5,289명)', 'GASTECH 2014(총14,000명/외국인5,000명)' 등 초대형 행사를 유치했고 특히, '제6회 국제 보조공학 심포지엄'은 한국관광공사 지역특화컨벤션 지원 사업 1위에 선정됐다.

이밖에도 경기도의 MICE 산업 육성 조례 제정, 한국관광공사와의 경기 MICE DAY 개최, 고양시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제회의 유치 등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MICE 산업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는 "경기도의 MICE 산업 육성 의지, 키폭스로 대표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전시·회의장,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011년 국내 지자체 국제회의(Convention) 유치 실적 8위에서 오는 2016년에는 3위까지 올라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담당 : 경기관광공사 (031-888-5160) | 등록일 : 2012.07.26)

[경기도] DMZ, 생태관광 활성화로 개발-보전 조화 가능

- 경기관광공사-(사)생태관광협회 생태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분단을 상징하는 세계유일의 보고 DMZ가 생태관광활성화를 통해 개발과 보전 둘 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지난 24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사)한국생태관광협회(공동회장 김성일, 제종길)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생태관광 전반의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 특히 DMZ의 경우 생태 환경 보전을 기본으로 생태관광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DMZ 생태 관광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생태관광 우수사례에 대한 경험과 지식 교환, 국제회의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두 기관은 올 해 10월까지 생태관광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무원, 청소년,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12 생태관광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추진·운영한다. 또 오는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릴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World Ecotourism Conference) 2012'를 공동으로 추진해 DMZ를 비롯한 전 세계 접경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DMZ일원에 대한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와 가치는 기대 이상으로 우리나라 대표 생태관광의 모델사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담당 : 경기관광공사 (031-888-5151) | 등록일 : 2012.07.25)

[경상북도] 경북도,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추진

경상북도는 하계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 12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경북 동해안으로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시내·외 노선버스 1천365대에 대해 배차시간 조정, 증회, 연장운행을 탄력 조정토록 했다.

또 법인·개인택시 1만282대에 대해 시장·군수가 부제를 해제하거나 조정해 수송력을 증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인 역·터미널의 시설물 및 운송장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하계 휴가철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자가용차량을 이용할 시는 이동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교통사고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담당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태 (053-950-3090) | 등록일 : 2012.07.26)

[경상남도] 관광홍보대사 ‘주령’ 초청 · 방문

– 7월 30일 ~ 8월 1일,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 유치탄력 기대

경남도는 지난 달 경남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한 중국 초대총리 주은래 손녀인 주령(여, 63년생)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초청하여 중국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상품 개발에 나선다.

이번에 초청한 관광홍보대사인 주령은 1994년도에 베이징금장미광고유한공사를 설립하고 현재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북경인민예술원 분장책임자와 스페인 국제모델회사 전속모델로 활동하였고, 중국북경 대형 TV 다큐드라마와 자연을 주제로 풍광작, 애정드라마, 대형음악회 등을 제작하여 문화예술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남관광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주령 일행은 방문 첫날인 7월 30일 오전 일찍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우리나라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왕릉을 관람한 후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을 둘러보며 가락국의 옛 발자취를 살펴보고 요즘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김해 한옥체험관을 방문하여 경남관광 패키지 상품개발에 나선다.

이날 오후에는 임채호 경상남도지사권한대행을 예방하고 대 중국 관광교류 협력 방안에 대하여 환담하고 경남도내 관광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남과 중국관 관광교류 방안을 모색한다.

간담회에는 도내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무학주조 최재호회장을 초빙하여 중국인 산업시찰 관광투어 상품개발에 나서며, 이병선 한국관광공사경남권협력단장, 중국인 숙박전문업체인 부산 롯데호텔 김성한 총지배인, 경남도 관광협회 추상명 회장과 도내 중국 주력 여행사 등 20여 명이 참가한다.

7월 31일 둘째 날에는 중국인이 제일 선호하고 올해 중국인 5만 명 이상이 찾은 통영 등 남해안 섬 투어에 나선다. 이미 지난 6월 5백만 명이 넘게 탑승한 통영케이블카를 타고 수려한 한려수도를 둘러보고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소매물도 등대섬에 올라 남해안의 청정해역을 탐방한다.

오후에는 동백 자생섬인 장사도를 찾아 청정 바다를 조망하는 전망대와 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둘러보며, 저녁에는 통영개발공사, 장사도, 유람선협회, 숙박업 대표 등 20여 명과 남해안 청정해역 관광상품 개발 간담회에 참석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8월 1일에는 미국뉴스전문 채널인 CNN에서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50선에 3위에 오른 남해 가천다랭이마을을 둘러보고 정현태 남해군수와 함께 남해군에서 조성한 자연예술촌, 박물관, 남해 죽방렴, 해안 펜션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본다.

이어 오후에는 서상항에서 크루즈를 이용하여 여수박람회장 내 경남홍보관 및 남해·하동 홍보관 등에서 경남의 관광지 소개에 나선다.

(경상남도, 담당 : 관광진흥과 (055-211-4823) | 등록일 : 2012.07.25)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이용객 10명 중 9명 “만족”

— 3262명 대상 만족도 조사…시설별 선호도 ‘숲 속의 집’ 최고

충남도내 자연휴양림 이용객 10명 중 9명은 자연휴양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10개 공유 자연휴양림 5~6월 이용객 3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만족도에서는 응답자의 89.5%인 2921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만족한다고 답한 88.9%에 비해 0.7% 향상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숙박시설은 87.3%인 2322명이, 접근성은 87.2%인 2845명, 직원 친절도는 87.8%인 2865명, 편익시설은 85.1%인 2776명,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89.1%인 2905명이 각각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놴다.

특히 금강 자연휴양림은 종합만족도와 숙박시설, 직원 친절도, 편익시설, 휴양림 이용 등 모든 분야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90%를 넘어 도내 자연휴양림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연휴양림 시설별 선호도에서는 숲속의 집이 33.4%(1089명)으로 가장 높았고, 산책?등산로 31.8%(1038명), 수목원 11.8%(385명), 삼림욕장 9.5%(311명), 기타 13.5%(4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차공간 및 숙박시설 확충과 청결상태, 이정표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등산로 개설과 화장실·평상 등 편익시설 확충 의견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고객이 원하는 것과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이지 찾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객 휴양 패턴에 부합하는 산림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담당 : 산림복지과 (042-251-2207) | 등록일 : 2012.07.30)

[충청남도] 도내 관광지 '정밀 방법진단' 실시한다

- 휴가지 안전대책 회의 개최...취약지 CCTV 확충도 추진키로

최근 제주도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관광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도내 관광지에 대한 정밀 방법진단을 실시한다.

도는 '피서철 관광지 아동·여성 성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 강화' 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솔바람길과 관광지 이면도로, 산책길 등을 대상으로 정밀 방법진단을 추진한다.

방법진단은 관할 경찰서,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범죄에 취약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을 선정하고, 순찰 실시 필요성 및 CCTV 등 방법시설과 각종 안내시설 설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도는 또 경찰 및 사회단체 등과 방법순찰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정밀 방법진단을 통해 선정한 취약지 및 취약 시간대에 방법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 주변 거점 근무지를 지정해 효율적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히 범죄가 발생할 경우, 관광지 이미지 및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는 점을 감안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법용 CCTV와 알림 표지판, 가로등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한 방법예방 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긴급 상황 시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치 표시판이나 비상연락 전화기, 비상벨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성범죄 등 범죄우범자 현황을 파악해 범죄예방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도는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관계 과장과 시·군 부단체장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휴가지 안전대책 중앙 및 자체 관계관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휴가지 안전대책 설명 ▲기관 및 부서별 안전대책 추진방안 설명 ▲의견 수렴 및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청남도, 담당 : 자치행정과 (042-220-3168) | 등록일 : 2012.07.27)

[충청남도]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 '케이-셔틀' 시동

- 충청남도 · 서울시 등 7개 지자체 참여...26일부터 운행 돌입

충청남도는 서울시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26일부터 외국인 전용 버스자유여행 상품인 '케이-셔틀(K-shuttle)'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케이-셔틀은 우리나라 주요 관광명소를 순환형 정기 셔틀버스로 연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곳곳 매력적인 관광지를 보다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부여-전주-순천-여수-부산을 경유하는 '서남부 코스'와 평창-강릉-원주-안동-경주를 거쳐 부산을 찾는 '동남부 코스'로 운영된다.

서남부 코스는 매주 화·목·토·일요일 등 4회, 동남부 코스는 매주 화·토요일 등 2회에 걸쳐 운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특정 도시에만 집중되던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여행 행태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앞으로 참여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여행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담당 : 관광산업과(042-220-3332) | 등록일 : 2012.07.25)

[전라북도] 걷기 좋은 녹색길 전국 'BEST 10' 에 선정

-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 숲 그늘 밑을 걸으며 30℃를 웃도는 불볕 더위에 휴식도 취하고 잃기 쉬운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 전북도는 정읍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우리마을 녹색길 전국 베스트 10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 우리마을 녹색길 : 마을주변의 역사 문화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길을 조성하고, 방문객 쉼터,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안내·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
- 이번 녹색길 베스트 10 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에 '우리 마을 녹색길'로 조성하기 위해 지원한 전국 80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걷기 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 심사기준은 우리마을 녹색길 취지에 맞는 경관성, 환경성, 접근 및 이용성, 편의성, 관심도 등을 중점 요소로 지역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읍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은
 - 1,300여년전 행상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백제가요 정읍사와 삶의 인생역정을 7개 테마로 나누어 구간별 토리와 천년사랑 프로그램을 가미하였다.
 - ※ 7개구간 : ① 만남의 길, ② 환희의 길, ③ 고뇌의 길, ④ 언약의 길, ⑤ 실천의 길, ⑥ 탄탄대로 길, ⑦ 지킴의 길
 - 총 길이는 17.1km로 정읍시 초산동 정읍사 공원에서 출발하여 내장상동 내장산 문화광장에 이르는 코스로, 완만하고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소나무 숲과 신우대 군락지, 내장호 수변경관, 정읍천변 자전거길로 이루어진 21세기 웰빙형 명품길로 손색이 없다.

(전라북도, 담당 : 환경보전과 (063-280-3964) | 등록일 : 2012.07.26)

[전라남도] 한국 주재 외국기업 주재원 남도여행

- 170여명 2차 걸쳐 여수세박 · 순천만 · 소쇄원 등 방문

전라남도는 국내 근무 중인 외국 기업들의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여수세계박람회 · 순천만 · 담양 소쇄원 등 한국문화 나들이 여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22일, 28~29일 2차에 걸쳐 이뤄진 이번 주한 지 · 상사 주재원 한국문화 나들이 행사에는 17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여수박람회장에서 해양오염이라는 인류과제에 대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체험하고 생태 친화적 환경정책 현장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답사한 후, 조선시대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엿볼 수 있는 소쇄원을 관람하는 등 전남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두루 체험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한 외국기업 주재원들은 여수박람회 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계기가 돼 앞으로 한국과의 상호 교류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문화부는 이번 행사 참여자 만족도를 반영해 주한 외국인에 대한 계층별 · 특성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한국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한국 홍보사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해 국내 주재원들의 남도여행이 대폭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 (061-286-5220) | 등록일 : 2012.07.29)

[전라남도]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확대된다

- 전남도, 특별법 시행 따른 후속조치 추진...숙박시설 확충 탄력

전라남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텔 등 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범위 확대 등 후속조치를 추진, 도내 숙박시설 건립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후속조치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용적률 적용 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호텔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전담반을 운영한다.

또 대체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한옥체험업 활성화, 캠핑장·남도민박 등급제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호텔 44개소, 콘도 8개소, 관광펜션 11개소, 모텔 1천907개소, 남도민박 2천629개소, 고택·종택 72개소, 한옥체험업 등록 176개소, 국민여가캠핑장 8개소(운영 5·조성 중 3)가 있다.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으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특별법 제10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특별법 제11조)할 수 있으며 호텔시설의 건설자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존 시설을 호텔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특별법 제14조)한다.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할 수 있고 호텔 건립 시 주차장은 300㎡당 1대를 기준으로 설치(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할 수 있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올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30실 미만의 호텔도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경우 호텔업(현재 관광호텔은 30실 이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사행행위 관련시설은 갖출 수 없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여수세계박람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와 함께 전남이 섬·해양·숲 휴양지로 부각되고 있어 숙박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문의가 많다"며 "특별법 시행으로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확대돼 전남에 소형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 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준영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숙박시설의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고 자금 회전이 길어 숙박시설 분야 투자가 저조하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연리 2%에 7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현행 3.55%·4년 거치 5년 상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남 선정액은 2012년 상반기 전국 3천851억원의 20.3%인 783억원, 하반기에는 전국 3천702억원의 7.8%인 287억원이었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 (061-286-5220) | 등록일 : 2012.07.28)

[전라남도] 한·중·일, 관광산업 교류 확대한다

- 26일 여수서 3국 지자체 관광국장 회의 갖고 관광자원 홍보 등 논의

전라남도는 26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한·중·일 3국 지자체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 3국간 관광산업 상호 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등 43명이, 중국에서 천진시·흑룡강성·광저우자치구·산둥성 등 11명이, 일본에서 아오모리·홋카이도·에히메·교토시·가고시마·나가사키 등 26명이 각각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지자체 관광 교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지방 관광 활성화를 통한 역내 관광 확대방안과 관광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중·일 지자체 우호 교류회의를 함께 개최해 3국 간 관광자원 상호 홍보 방안, 인적 교류 증대 방안, 한·중·일 참가 지자체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를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회의와 연계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중·일 지자체 우호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정인화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에서 한·중·일 3국 지자체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며 "한·중·일 3국 지자체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 (061-286-5220) | 등록일 : 2012.07.26)

[전라남도] 외국인 관광객 위한 '자유투어버스' 시동

- 26일부터 서울~전남 간 운행...여수세박·f1 관광객 유치 기대

전라남도는 외국 관광객이 여수세계박람회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보다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버스자유투어(k-shuttle)' 상품을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버스자유투어 상품은 서남권과 동남권으로 나뉘어 운행된다. 서남권은 서울~충남(부여)~전북(전주 1박)~전남(여수·순천 1박)~부산~서울(2박3일)을 주 4회 운행하고 동남권은 서울~강원(강릉·평창)~경북(안동·경주)~부산~서울(2박3일)을 주 2회 운행한다.

자유투어 버스는 안내자(가이드) 비용을 제외한 버스비·숙박비·관광지 입장료 등은 여행자가 직접 부담하고 관련 자치단체는 숙박·관광지·식당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자유투어버스를 활용해 여수박람회 관람을 유도하고 여수박람회 종료 후에는 f1대회, 남도대표축제 등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상품코스를 구성, 시기별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외국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도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소개하는 등 전남의 맛과 멋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소문을 유도해 자연스런 남도 홍보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서울시 및 전담여행사인 체스투어즈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남도의 관광자원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자유투어버스는 연중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전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단순히 관광지 방문과 체험관광에 그치지 않도록 숙박·음식점·쇼핑·주요 관광지에 대한 꼼꼼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전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유도해 많은 홍보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남을 세계에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 (061-286-5240) | 등록일 : 2012.07.25)

[전라남도] 전남 치유의 숲 대상지 17곳 자연치유력 확인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음이온 · 피톤치드 풍부해 아토피 등에 효능

전라남도가 해변 · 섬 · 숲 등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연 치유 명소로 육성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윤병선)가 해당 숲 17개소에 대한 효능물질 조사를 실시, 자연치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

25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만성질환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난 2010년부터 장흥 정남진 편백숲 등 역점 추진 중인 치유의 숲 17개소에 대해 숲 환경 관찰(모니터링)에 나섰다.

연구팀은 1단계 치유숲 관찰로 보성 제암산, 장성 축령산, 화순 만연산, 광양 백운산, 담양 죽녹원, 여수 봉황산, 장흥 우드랜드 7개소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숲의 자연치유력을 증명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광주시 공용터미널)과 이들 숲 지역의 피톤치드 · 음이온 · 부유세균 · 미세먼지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공기비타민이라 불리는 음이온은 축령산, 백운산, 제암산 등에서 각각 2천014, 1천914, 1천892개/cc로 도시 공기(200개/cc 이하)보다 10배 이상 높게 측정됐다. 음이온은 혈액 정화, 살균작용 및 세포의 활성 증진을 촉진시키는 등 면역력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피톤치드는 만연산, 죽녹원, 제암산 등에서 각각 927, 749, 738pptv(1조분의 1을 나타내는 부피단위)로 나타났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병원균, 해충, 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내뿜거나 분비하는 물질로 삼림욕을 통해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이 강화되며 살균 효과도 있다.

특히 이들 숲에서는 아토피와 호흡기질환에 좋은 알파피넨(α -pinene)과 베타피넨(β -pinene)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항균작용을 하는 사비넨(sabinene) 성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올 하반기에도 치유의 숲 대상지 10개소를 추가 조사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구축, 치유 주제별 건강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관찰 조사를 통해 장성 축령산과 장흥 억불산은 편백나무가 많아 아토피성 피부염 · 갱년기 장애 · 호흡기 질환 ·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고 참나무가 많은 고흥 팔영산은 류머티스 신경통 · 위장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윤병선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이번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에 대한 1차조사 결과를 널리 알려 관광을 활성화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효능물질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 전남 숲만이 가진 자연치유력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산림자원연구소 (061-336-6302) | 등록일 : 2012.07.25)

[전라남도] 전남 해변·섬·숲, 자연 치유 명소로 육성

- 전남도, 24일 공기질 성분 탁월 25곳 '자연치유 해도림' 선포식

전라남도는 도내 해변·섬·숲 등 깨끗한 자연환경이 건강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치유관광의 최적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25일 오후 2시 신안 우전해변에서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島림'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자연치유에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 300여명이 참석하며 연예인 윤용현·김세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전남이 자연치유 요람임을 적극 알리도록 했다.

행사장에서는 연예인 김형일, 아나운서 김지형, 가수 우순실·한서경·김희진·천동, 영화배우 임서희, 미스코리아 조나랑 등이 참석자들과 함께 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島림' 선포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자연치유 자원들을 보유한 전남도가 공기질 효능과 성분이 탁월한 해변 4곳·섬 1곳·숲 17곳 총 25곳을 치유관광·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 서남해안은 자연이 선사한 갯벌, 모래해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은 2천219개로 전국의 65%를 점유하고 있고 숲은 69만4천ha에 이른다.

전남의 해변과 섬, 숲은 자연치유 성분인 피톤치드와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음이온이 매우 풍부하고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알파피넨은 국내 다른 지역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전국 233개 해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 우수 해변 톱 15'에 전남 해변 8개소가 선정됐다.

최근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 '여수 밤바다'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진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해변의 경우 원적외석으로 불리는 모래열이 신경통질환과 부인병 치료 효능이 있어 치유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치유의 숲으로 유명한 장성 축령산과 장흥 억불산은 편백나무가 많아 아토피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효과가 있어 지난해 60만명이 방문, 치유효과를 흠뻑 만끽하고 돌아갔다.

전남도는 이처럼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과 '음이온' 효능이 우수한 섬·해변을 치유관광·휴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연 치유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공기질 효능 및 성분 분석을 실시, 각종 심신질환에 맞는 공기질 특성에 따라 치료 효과가 우수한 기본 데이터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으로 지정된 지역이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 및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본 투자 유치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061-286-5260) | 등록일 : 2012.07.24)

[제주특별자치도]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추진

- 피서지 중심 바가지 요금 등 집중 관리로 물가안정유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피서철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40일간을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고
- 음식값, 숙박료, 렌터카료, 피서용품 대여료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해서 6개 분야* 별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6개 분야 : 농·축산물, 개인서비스, 피서용품, 교통, 상거래질서
- 이번 대책은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옥외 가격표시판 부착 등을 통한 소비자선택권 확대, 위생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자율적인 현장제도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피서지 물가안정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해변(해수욕장)주변, 계절음식점의 운영 주체(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중심의 피서용품(파라솔 등) 대여가격 이행준수와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 등 바가지 요금 없는 건전 피서지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한편, 물가대책종합상황실(710-2512), 민원콜센터(120번), 해변(해수욕장)관리사무소 및 불편 신고센터(13개소)와 연계하여 부당요금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064-710-2516) | 등록일 : 2012.07.25)

[제주특별자치도] 2012. 7. 27부터 원동항공 제주-까오슝 취항

-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 확대로 외국인 관광수요 창출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 대만국적의 원동항공(遠東航空)이 지난 6월6일 범아항운(주)와 GSA(한국총대리점) 계약을 맺고 7월27일부터 제주-까오슝노선을 10월31일까지 4일간격으로 25편을 전세기 형태로 운항할 계획이다.
- 제주-까오슝 신규노선은 제주에서 20시25분에 출발하여 21시50분도착, 까오슝에서 16시00분 출발, 19시25분 제주에 도착하며 운항시간은 2시간 25분이 소요되며, 향후 제주-까오슝, 제주-타이페이 정기편으로 운항될 예정이다.
- 현재 원동항공은 타이페이-태원, 난닝, 석가장, 까오슝-성도. 합비를 비롯한 국제 10여개 노선과 타이페이-금문, 마공, 까오슝-금문등 국내 4개 노선이 매일6회 이상 운항되고 있는 등 대만의 타 항공사와 차별화되는 노선이 활발하게 운항되고 있다. 또한 타이페이와 까오슝을 기점으로 한 팔라우등의 동남아지역으로의 확대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 범아항운(주)는 제주-까오슝노선을 시작으로 부산-타이페이, 부산-까오슝 정기노선으로 점차 운항을 늘려갈 계획이며 현재 운항되지 않았던 노선의 신규취항으로 까오슝지역의 비즈니스수요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현재 제주기점 국제노선은 정기노선 4개국 14개노선, 부정기노선 2개국 19개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외국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직항노선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에 노력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신공항건설추진단 (064-710-6473) | 등록일 : 2012.07.24)